

혼다니구치 감시소 터

17세기 초기 이와미 은광을 직접 관리하게 된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는 이와미 은광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은광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고 모든 출입구에 감시소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감시소의 관리들은 은광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세금을 매기거나 막부의 재원인 은이 반출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채굴 지역에서 노동이나 거주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었던 채굴지 주변에는 이러한 감시소가 10 개소나 있었습니다. 또한 막부가 직접 관리하고 150 여 개의 인근 마을을 아울렀던 긴잔고려라는 지역 일대에는 더 많은 감시소가 있었습니다. 혼다니구치에서는 18세기 후기까지 이와미 은광의 주요 채굴장 중 하나였던 혼다니(‘주요(혼)한 계곡(다니)’이라는 뜻)로 통하는 입구를 감시했습니다.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많은 광석이 채굴된 갯도와 수직갱이 이 혼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했습니다. 혼다니구치와 그 인근에 자리한 미즈오치구치는 쌍을 이뤄 이와미 은광의 치안을 유지한 주요 지점이었습니다. 감시소 건물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길가에 있는 작은 토루(흙더미)가 당시의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